

## 4》 학교기업으로 시작한 셀란, 폐업



## 6》 영통역 셔틀버스 이용률 저조



## 2017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기간 : 2017. 6. 1(목)~6. 27(화)  
대상 : 서울·국제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성적 열람 및 공시기간 : 2017. 7. 3(월)~7. 5(수)  
강의평가 실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접속 → 수업/성적/상감 → 강의평가 클릭



## 양 캠퍼스 대동제

대동제가 한창인 5월 24일 풍물굿패 연합 학생들이 음악과 함께 네오르네상스관 앞을 지나가고 있다. 국제캠퍼스에선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간, 서울캠퍼스에선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 진행된 다양한 행사로 떠들썩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사진= 박예령 기자)

## Newsmaker

청와대 한방 주치의 임명자  
김성수(경희한방병원) 원장



## 한의학 예방치료로 대통령 건강 책임진다

정현진 기자 jh881@khu.ac.kr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 의무 시스템이 지난 정권의 '비선진료'로 무너진 지금, 대통령 주치의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다. 지난 26일, 우리학교 한방병원 김성수(한의예 1969) 원장이 청와대 한방 주치의로 위촉됐다. 한의사로 40여 년의 세월을 걸어온 김성수 원장을 만나봤다.

"시험보다 의료봉사가 우선이던 학생." 김 원장은 학부 재학 당시의 자신을 이렇게 회상했다. 김 원장은 당시 의료 봉사 동아리 '원더스'에 몸 담고 있던 69학번 학생이었다. 그는 의료 봉사를 하며 환자를 치유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환자의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생각하는 자세를 배웠다.

김 원장이 국내 의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인 청와대 주치의에 임명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의예과를 졸업, 석·박사까지 우리 학교에서 이수한 김 원장은 40여 년이 넘는 세월을 한의사로 살며 우리 학교 한방병원 원장을 두 번이나 역임했다. 김 원장은 주치의로 위촉된 소감을 밝히며 "한의학계를 대표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건강은 개인의 건강이 아니기에, 양방 주치의와 수시로 소통하며 한의학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청와대 한방 주치의는 노무현 정부 때 '한의학 육성'을 목표로 처음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3년 간 공석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르러서는 비선 진료로 청와대 공

식 의무 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 했다. 김 원장은 "한방 주치의 제도는 한의학의 전문화 뿐 아니라 양의학과 한의학 간 통합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입됐다고 생각 한다"라며 "침 치료의 효능과 예방 의학으로서의 우수성이 인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명으로 양의학과 한의학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의무 시스템 정상화에 대해 "국가원수는 개인이 아니기에 비선진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 의무실을 통해서 절차대로 진행되는 진료체계로 바로 잡을 것을 양방 주치의와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 학부시절부터 이어온

## 환자 곁에 서겠다는 꿈

## 대통령 주치의로 이어나간다

"한방 주치의로서는 한의학적 예방치료와 항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춰 진료할 생각이다"며 계획을 밝힌 그는 "한의사로서는 환자 진료에도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싶은 마음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대학생활 중에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이 필요 한 사람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김 원장의 공식 일정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미국 순방으로 시작된다. 대통령 주치의로 활동하는 중에도 다른 환자들과의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는 김 원장의 행보가 기대된다.

## 알림

##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카카오톡 월로 ID : 대학주보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트위터 : @khunes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캠퍼스 타운’ 경희와 회기의 상생

##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박예령 기자 cyon03@khu.ac.kr

【서울】 서울시에서 모든 대학가를 '캠퍼스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에 우리학교가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과 지역 교류를 꾀할 대학의 '사업제안'을 서울시가 모집해 지원하는 장기사업이다. 30여개 대학의 사업제안 중 우리학교를 비롯한 13개 대학이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회기동에서는 우리학교 지구사회봉사단(GSC)의 '회기동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회기동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지역과의 교류에서 느낀 한계를 타개하고자 기획됐다. GSC는 2009년 발족된 이후부터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민자치학교, 사랑의 몰래산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5년에는 보다 특색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 '회기동 사람들'이라는 학생 모임도 만들었다. '회기동 사람들'은 지역축제 개최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나, 플리마켓과 버스킹이 주를 이뤄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GSC 김윤식 연구원은 "주민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어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프로그램이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다시 '공유형 상점' 계획과 '골목커뮤니티 활성화' 계획으로 구성되고, 하드웨어 프로그램은 '골목 특화사업'과 '도로 디자인 개선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김 연구원은 "우리학교만이 전공연계와 환경개선, 관계형성과 골목상권까지 고려한 복합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며 "사람을 남기는 사업이 목표인 만큼 청년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주민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 말했다.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GSC 학생모임인 '사이다'를 주축으로 운영된다. '사이다'는 '회기동 사람들'과 청년상인, 추가로 모집할 지원단으로 구성된다.

공유형 상점은 하나의 점포를 시

못하고 단발적인 관계만 형성되는 것에 고민이 많았다"며 "의미 있는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던 찰나에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사업을 보고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간과 요일 별로 여러 개의 사업자가 나눠서 운영을 하는 상점으로 팝업 스토어, 타임 스토어 그리고 에브리원 스토어로 나뉜다. 팝업 스토어는 기존 점포의 유휴시간과 유휴 공간을 이용한 상점 내 상점을 말하며 리모델링 비용과 임대료를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타임 스토어는 한 개의 점포에서 4~5팀의 상인들이 시간과 요일을 배분하여 운영하는 상점이다. 타임스토어에 입점하는 상인들은 건물운영까지 맡게 된다. 에브리원 스토어는 구청이나 마을협동조합 소유의 점포와 같은 공공소유의 점포에 단기간 임대를 신청해 창업하는 상점이다.

김 연구원은 "공유형 상점으로 사용할 점포 공모와 동시에 기획단을 모집할 것"이라며 "추후 창업아이템을 공모해 참가상인들 중에서 도일부 선정할 예정"이라 말했다.

▶8면으로 이어짐

# 연이은 사업 선정, 이공계열 발전 계기 되나

## 국고지원사업 선정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신정인 기자 sj0201@khu.ac.kr

#.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NC+)' 사업, 그리고 공과대학 혁신사업은 우리학교가 이번학기 선정된 이공계열 관련 사업들이다. 지난해 프라임사업에서 고배를 마셨던 경험을 딛고 우리학교의 이공계열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관련 사업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살펴봤다.

우리 대학은 '삼수' 끝에 S/W 중심대학에 선정됐다. 올해 S/W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센터(IITP)가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은 S/W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학생·기업·사회와의 S/W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사업 선정을 통해 우리학교는 최대 11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에는 10억 원을 지원 받았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2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평가에서 사업 연장 승인을 받게 되면 추가 2년 동안 4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대학은 '삼수' 끝에 S/W 중심대학에 선정됐다. 올해 S/W 관련

학과의 인원 증설과 '소프트웨어적 사유' 과목 개설, '경희S/W나눔봉사단'의 활동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SW융합학과에 더해, 융합전공 확대되나

SW 중심대학 사업 예정사항에는 ▲SW융합단과대학 설립, ▲'K-S/W인재' 전형신설 및 장학금 전액지원 ▲KNU S/W부트캠프 프로그램 개설 ▲'Biomedical 빅 데이터 분석' 학·硕사 연계 특성화 과정 신설이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계획은 '소프트

웨어융합단과대학 설립'으로 올해 신설된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단과대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융합단과대학에서는 빅데이터, 애슬디자인, 로봇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를 통한 융합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정보대학 교수진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 대표 간의 간담회가 한 차례 진행됐지만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없다. 2019년부터는 'K-S/W인재 전형'을 신설해 30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3면으로 이어짐

## 전문가 칼럼

혁명 이후, 더 치밀한 견제가 필요한 때  
김민웅(교육대학원) 교수 ▶7면



## 시선

## 사설

## 결국엔 소통이다

불통으로 인한 웃지 못 할 촌극이 학내에서 다시 벌어졌다. 서울캠퍼스 삼의원 기숙사 운영에 대한 내용이다. 삼의원은 지난 11일 여름방학 전원 퇴사와 이후 내국인 입사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지를 내걸었다.

총학생회와 삼의원 사생으로 구성된 자치회는 삼의원의 일방적인 통보를 '삼의원 사태'라 명명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캠퍼스 한글판 부총장은 지난 15일 총학생회에 대한 답변을 통해 '충분한 소통 없이 검토 중인 사안이 전달되어 오해와 혼란을 드리게 됐다'고 전했다.

또 다시 소통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사회는 불통의 시대를 넘어 소통의 시대를 맞이한 기대감으로 가득한 모습이다. 그러나 학내는 여전히 불통으로 내용을 겪고 있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주거'라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말이다.

우리신문은 그간 수차례 소통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몇 번을 지적해도 해결되지 않는 모습, 몇 번을 지적해도 부족하지 않은 이유다. 가깝게는 구성원조차 외부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했던 미래창조스쿨이 그러했고 사업계획서 유출 방지를 이유로 구체적인 공개의 거부를 꺼렸던 프라임사업이 그러했다. 지금은 완료를 앞두고 있는 Space21 사업 역시 길고 힘든 시기를 거쳤다.

그래서 구태여 소통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다. 소통이란, 1.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 2.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번 삼의원 사태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모두 빛나거나 발생한 일이다. 새로운 기숙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존 기숙사와 신축 기숙사의 운영에 대한 논의는 분명 필요하다. 문제는 '논의의 과정'이다.

학교는 이를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총장의 답변에서도 읽을 수 있듯 학교는 모종의 논의를 진행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 실제로 기숙사에 입사할 학생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설령, 삼의원 공지가 모든 논의를 끝내고 확정된 일이라 가정하더라도 더더욱 수긍하기 어려워진다. 방학을 한 달 남짓 남기고 전원 퇴사와 2학기 입사 불가를 전하면, 학생들이 그것을 학교의 소통 의지로 받아들이고 수긍하리라 생각했던 말인가. 만약 공지를 소통의 시작으로 생각했다면 이는 오산이다.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조차 하지 않은 통보의 어디에서 소통을 찾아야 한단 말인가.

사태가 커지고 나서야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한다. 그렇게 봉합되는 것처럼 보인다. 익숙한 장면이다. 불통을 지적받아야 소통에 나선다. 반복되는 과거에서 배움을 얻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대학 본부에게 구성원은 믿음을 보낼 수 없다. 하물며 신축 기숙사의 건립과 함께 부족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구성원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른 시점인 만큼 '삼의원 사태'는 더더욱 실망을 안긴다.

학교는 빠른 대응을 보였지만 이를 현 시점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새로이 구성될 협의체 안에서 원만한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 그리고 소통의 결과로 다수의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

## 세계 휩쓸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우리학교 빠른 대처로 피해 없어

미디어 여론동향 2017. 5. 15 ~ 5. 28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전 세계적으로 20만 대 이상의 PC를 감염시키며 피해를 확산 중인 랜섬웨어 '워너크라이(WannaCry)'가 국내에 상륙했지만 다행히 우리학교의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우리학교, 빠른 대처로 "랜섬웨어 피해 아직 없다"/대학주보 온라인, 2017.5.16) 정보지원처는 지난 14일 이메일을 통해 교직원에게 랜섬웨어 대응 방안을 전달했다. 현재 양 캠퍼스 보안 방화벽을 통해 일부 랜섬웨어는 자동으로 차단되고 있다. 이번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의 주공격 대상은 윈도우XP가 설치된 PC로, 양 캠퍼스에 등록된 비품 PC 약 16,000대는 지난 2013년 윈도우XP 지원 종료와 함께 윈도우 버전 업

## 만평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이 주의 주제 - 국가지원 사업

## ‘소통’과 ‘실행’의 조화로 나아가는 미래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총 360억 원. 우리학교가 올해 상반기에 국고지원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지원받게 된 결과물이다. 그동안 프라임사업, 코어사업, 에이스사업 등 여러 국고 지원 사업들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어째서인지 합격 명단에 이름을 옮기는 데에 번번이 실패했다. 그간 탈락 속에서 얻은 교훈이 있었던 것일까. SW 중심대학 선정에 이어 링크플러스 사업, 그리고 공과대학 혁신 사업까지 연달아 사업에 선정됐다.

연이는 사업 선정의 비결은 체계적인 사업 계획서 속에 있었다. 링크플러스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학교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던 현장에서부터 평가단의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그만큼 야심차게, 지난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만들어진 계획들로 꾸려진 탓일 테다. 사업 계획서를 받아 검토하다보니, 계획대로 실행만 된다면 그야말로 '대박' 일 것들이 많다. KHU-Valley 프로그램, KHU SW 부트캠프, 글로벌 혁신센터 구축 등과 같이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들이 세워져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에 앞서, 계획한 사업을 온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선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먼저 SW 중심대학 사업과 링크플러스

데이트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랜섬웨어는 종류가 다양하고 한 번 감염되면 자료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지원처는 윈도우10 이하 버전을 사용하는 PC의 빠른 보안 업데이트와 중요 자료 백업을 당부했다.

지난 17일, 평화의전당에서 '경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17년 정기연주회'가 열렸다.(음악대학 경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회 열려/대학주보 온라인, 2017.5.18) 음악대학 강석희(기악과) 교수의 지휘 아래 진행된 이번 연주회에서 R. 슈트라우스의 <돈 주양 Op. 20>, E. 쇼송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시곡 E♭장조 Op. 25>, J. 브람스의 <교향곡 No. 1, c minor Op. 68>이 연주됐다. 1955년 창단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경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기악과 재학생으로 구성돼 있으며, 25일에는 제48회 작은 음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대나무숲에선 통학생의 서러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자가용으로 30분 거리인데 왜 통학만 하면 왕복 세 시간이 되는 걸까' (#경희 숲\_21733, 2017.5.17)라는 글의 글쓴이는 '다음 학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기숙사 들어간다'라고 통학의 어

려움을 토로했다. 257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5500-1번을 타면 강제로 용인 투어를 할 수 있지', '인천에서 통학할 때 편도 최대 4시간까지 걸려봤습니다. 인천에서 부산 가는데도 다섯 시간이면 되는데', '이게 진짜 내 이야기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교육부의 '아세안 국가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 연수 사업'에 우리학교가 위탁 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경희 이공계 역량, 아세안 국가에 전수한다/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5.24) 아세안 국가 대학생을 초청, 국내 우수 대학의 이공계 학문과 산업 발전 모델을 체험하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우리학교는 총 7천 5백 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우리학교는 이미 학업성적, 전공지식과 연구계획서, 화상면접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서 총 24명의 연수생을 선발했다. 이들은 오는 7월 10일부터 한 달간 국제캠퍼스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 기계공학과,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사회시스템기반공학과의 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연수 교육과정을 통해 연수생들은 융합형 실무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되며,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체험도 이뤄질 예정이다.

## 축제의 함성에 묻힌

## 서러운 눈물

세시봉

양윤혁 (국제뉴스팀장)



#1. 즐거운 대동제였다. 이벤트로 손님을 호객하는 목소리는 열정적이었고, 음악 소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대동제를 누비며 찍는 사진에는 찾아온 연예인에 환호하는 풍경도 친구와 함께 어깨동무하는 모습도 담겼다. 그러나 어두운 구석에서 들리지 않는 울음소리가, 보이지 않는 눈물도 함께였다. 이제 대동제의 꽃이 된 '주점'을 운영하는 학생들을 향한 성희롱 탓이었다.

#2. 주점의 대다수 풍경은 즐거움이다. 대동제에서 가장 주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한 만큼 주요한 교류의 장이 됐다. 자주 만나기 어려운 선후배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교수님들도 제자들과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즐거운 추억을 공유하고, 서로 건네는 짓궂은 농담에 웃는다. 대부분에게 기억되는 주점 행사는 이렇다고 믿는다.

#3. 주점의 운영을 도맡는 학생회 집행부와 신임생 중에는 이런 행복한 경험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축제기간 동안 여러 주점을 돌아다니며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 운영진들과 손님들을 불접고 물었다. "주점행사를 진행하시는 데 힘들지는 않으세요?"라는 물음에 대부분의 대답은 "몸은 고되지만 나름대로 재미있다"였다.

하지만 다음 질문에는 다들 머뭇했다. "이번 주점에서 손님들의 성희롱이나, 불쾌한 경험은 없으셨나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대답을 피하거나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답을 피하던 이들은 "주변에서 그런 일을 겪은 친구들이 더러 있다"고 말했다. "잠깐 앉아서 술 한 잔 해요", "저 몇 살로 보여요?" 누군가 단순히 술기운에 던진 말이라지만, 또 듣는 누군가는 그늘에서 서럽게 우는 풍경이 올해 대동제에서도 있었다.

#4. 사람들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가면을 쓴다. 심리학에선 이를 '페르소나'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동생이면서 선배이고 자식이자 연인이 된다. 일상에서 같은 학교,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던 '학우'들은 축제기간 주점에서 '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난다. 그러나 축제 분위기에 도취해 '현탕', '번호 따기'나 '어떻게 한 번 만나볼' 대상으로 인지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축제의 함성 속에서 누군가의 울음은 묻혀버리고 만다.

축제기간이기 때문에 일탈로서 용인될 수 있는 것일지, 달래지 못한 누군가의 상처는 대물림돼왔다. 크게 어울려 화합한다는 대동제의 시끌벅적함 속에 묻혀 누군가의 울음소리는 너무도 작았다. 마냥 울음을 터뜨리게 만든 사람들은 마저 일행들과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새벽이 돼서야 돌아갔을 테다. 울음을 터뜨린 학생은 남들이 없는 구석에서 소리를 참으며 울었거나, 옆에서 동료 한 명은 분한 마음을 참고 우는 그 친구를 위로했을 것이다.

축제기간의 불화는 대다수의 즐거움 속에 숨어 있다. 축제를 맞는 우리와 우리의 주변 모두가, 숨어서 울고 있는 사람 없이 온전히 화합할 수 있는 축제를 기대해본다.

## 알림

## 대학주보에

##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해경 | 편집장 기호웅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덕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 미래 청정 에너지 기술 연구, 신산업 창조 여부 주목

▶ 1면에서 이어짐

KHU S/W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비전공자를 위한 SW 부전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Biomedical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학·석사 연계과정은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학·석사 통합 5년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있다.

산학협력 활기 뛸까

‘LINC+ 사업’

‘LINC+ 사업’은 기존의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지역과 대학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수한 인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으로 우리 학교는 총 20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올해 35억 5천만 원을 지원 받았으며, 오는 2019년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5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 받는다.

학교 측은 지원금을 교육인프라 구축, 현장실습 지원, 창업프로그램 지원 등 학생의 취·창업 역량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역 기업의 재직자 교육, 산학공동연구 등 기업 성장·발전에 관한 혁신활동 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특화산업 중점지원센터 운영과 글로벌비즈니스 혁신센터 구축으로 지역 산업의 혁신활동과 해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이 기업경영의 전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KHU Valley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미래자동차, 로봇, 게임콘텐츠 등 ‘수요 창출형’ 융·복합 교육과정 신설 역시 계획 중이다.

지역 산업체의 혁신 활동 또한 지원한다. 열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교수와 학생이 참여한 혁신기술연구회(Community of Practice) 운영으로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공과대학 혁신사업

이공계열 인재양성에 주력

공과대학 혁신사업은 교육과 연구의 현장지향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장 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사업(X-corps)과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으로 나눈다.

##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

### 학생·기업·사회 SW경쟁력 강화

SW융합단과대학 설립  
K-SW인재 전형 신설  
KHU S/W 부트캠프 운영  
학·석사 연계 특성화 과정



## LINC+

### 지역-대학 협력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산업 중점지원센터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센터 구축  
창업 경험 프로그램 KHU Valley  
혁신기술 연구회 운영



## 공과대학 혁신 사업

### 교육·연구의 현장지향성 제고 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캡스톤디자인 활용한 교육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에너지사업분야 기술개발 연구  
(미래과학 클러스터와 연계)



### 우리학교가 선정된 이공계열 국고지원 사업은?

	SW 중심대학	LINC+	X-corps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지원금	최대 110억 원	최대 200억 원	2억 4천만 원	최대 45억 원
기간	최대 6년	최대 5년	1년	최대 5년
핵심내용	K-SW인재전형 신설	KHU-Valley 프로그램	학생 연구팀과 현장 재직자 연계	미래청정 SMART 에너지 플랫폼 기술 연구

올해 1년간 진행되는 X-corps 사업은 학생들을 관련 분야 협업에 재직 중인 사람들과 연결한다. 졸업 논문 대신 수강하는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대학원생 팀장 한명과 학부생 2~4명으로 이뤄진 팀 23개를 선발해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전자공학과 11개 팀, 생체의공학과 4개 팀, 기계공학과 8개 팀이 참여할 수 있다.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은 공과대학 주도로 핵심 유망 산업 군을 선정해 산·학·연 간 기술교류 및 협동연구를 촉진해 차세대 공학연구자를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5년간 총 45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올해는 5억 원을 지원 받았다.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미래청정 SMART 에너지 플랫폼 기술연구다. 친환경 소재기반 고효율 신재생 및 미활용 에

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저장 소자 및 시스템 플랫폼 기술 개발, 에너지운용 최적화 및 지능화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친환경 에너지가 우리학교의 5대 클러스터 중 미래과학과 관련 있는 분야이며, 공과대학이 특화하고 있는 연구 주제이기 때문이다.

### 눈에 띄는 이공계열 약진 추가 사업 계획도 구상

다른 사업들이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면, 이 사업은 석·박사과정 연구진과 교수를 위한 사업이다. 전국에서 5개 대학만이 선정된 사업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 더불어 우리학교의 연구진들이 SMART 에너지 플랫폼이라는 신산업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기대된다.

살펴본 SW 중심대학 사업, LINC+ 사업, 공과대학 혁신사업은 모두 이공계 분야의 사업이다. 관련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연구가 시작되면 우리학교 이공계열의 부상이 기대된다. 공과대학 임성수(기계공학) 학장은 “사업의 목적은 사회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하는 데에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 관련 사업이지만 공과대학 이외 학생들에게도 사회 진출에 대한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임 학장은 “이제 첫발을 내딛었지만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외에도 우리학교는 국책연구소와의 공동연구, 미래과학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외부 연구 기관과 함께 대학원 연구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발전도 기대해볼 만하다.

## 우리학교 원자로센터 실험교육기관 선정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우리학교 원자로센터가 지난 5월 12일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로부터 원격 원자로 실험교육기관(Internet Reactor Laboratory, IRL)으로 선정된 사실이 공식 발표됐다.

IRL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것으로, 향후 원자력을 도입할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육 인프라를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우리학교 원자로센터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학 간 협력 사업에 참여해 국내 유일의 교육용 원자로 AGN-201K를 활용한 강의 및 실험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IAEA가 요청하는 외국 대학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을 연 1회 이상 수행해야 한다. 원자로센터 김명현(원자력공학) 원장은 “올해 IAEA가 지정한 2~3개의 대학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이와는 별개로 동남아, 중국, 중동 등 해외대학과 협의해 IRL프로그램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며 “IRL 프로그램은 해외대학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공학과가 존재하는 국내 16개 대학에도 서비스할 수 있다”고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학교는 1차 CEA-Saclay INSTN(프랑스), 2차 CNEA-Bariloche(아르헨티나)에 이어 3번째로 IRL로 선정됐다. 이에 김명현 원장은 우리학교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과 성과가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우리학교 원자로센터는 2008년 설립 이후 국내 대학생 대상으로 43회에 걸쳐 478명, 외국 학생 대상 11회 105명, 한국 원자력연구원 직원 대상 3회 24명, 중·고교생 대상 21회 457명 등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우리학교 원자로센터에서는 기존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원격강의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대상 대학에 원격 실험실을 별도로 설치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담당 교수를 초빙해 이론교육을 전수하고 실험과정 및 운영에 대한 안내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원격강의는 우리학교와 교육대상 대학의 학생들과 교수진이 인터넷을 통해 대화하며 실험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김명현 원장은 “국제협력 실적으로서 향후 해외대학의 교육수요를 자체적으로 확대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학교 원자력 공학과의 국내·외적 위상을 높이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 2017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서울캠퍸스, 국제캠퍸스)

● 계절학기주요 일정		
구분	일시	비고
개설과목 확인	2017. 05. 24(금)	
학점교류생	추천기한: 2017. 05. 31(수) 17:00 까지 학번부여: 2017. 06. 09(금)	학번부여SMS안내문자발송
수강신청기간	2017. 06. 14(수) 10:30 ~ 06. 15(목) 17:00	본교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개설학기’ 검색창과 수강신청 링크클릭
폐강공고	2017. 06. 15(목) 12:00(화) 2017. 06. 21(금) ~ 08:00(화)	경희대학교홈페이지 ‘학사안내’
등록금납부기간	2017. 06. 19(금) ~ 06. 20(화) 16:00	하나은행가상계좌로납부
수강신청기간 (폐강과목 수강생)	2017. 06. 21(수) 09:00 ~ 17:00	후미나리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2주 폐강과목 수강자에 한함)
수업기간	2017. 06. 22(금) ~ 07. 15(목)	
성적발달일	2017. 07. 07(화) ~ 07. 14(금)	
성적정말일	2017. 07. 17(월) ~ 07. 18(화)	
● 수업내 가 수업시간		
구분	학점	교시
서울 캠퍸스	1학점 (실기)	1교시 10:00~11:50 2교시 13:00~14:50
	2학점	1교시 10:00~11:50 2교시 13:00~14:50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5:45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5:45
	온라인교류 국제 캠퍸스	온라인교류 온라인강좌

● 수강동록  
가. 수강금액: 1학점당 89,000원  
나. 등록방법: 경희대학교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정학 → 등록메뉴중 [개설학기 등록금]내 [참조 1]입력사항: 학번/2017학년도 학기/등록학기/경희대학교에서 부여된 본인의 학번을 입력후 조회  
2. 확인사항: 신상과목과 납부금액, 본인에게 부여된 하나은행 계좌번호 확인  
다. 납부방법: 상부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  
1. 등록금 일부 본인에게 납부한 경우에만 계좌번호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등록금 납부일 이후 수납이 불가하오니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 등록 후 수강취소 및 환불  
가. 수강취소방법: 후미나리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 ‘개설학기 등록금 환불신청서’ 작성(본인명의 통장사본동봉)

나. 환불기준

수업개시일/일전까지 등록일 ~ 2017. 06. 21(화) 17:00  
수업개시일부/1/3경과전 2017. 06. 22(목) ~ 06. 28(수) 17:00  
수업개시일/2/3경과후 2017. 06. 29(수) ~ 07. 03(일) 17:00  
수업개시일/2/2경과후 반원금(수강취소불가)

\* 수강신청한 과목이 폐강으로 인한 수강취소일 경우에도 개설학기 등록금 환불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 환불금액의 지급 예정일: 수업개시일/2/2경과 후부터 환불신청자에게 일정수기(수강취소일 기준)

(바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가. 개설기준: 전공 10명 이상, 교양 기초/부분/자유이수 10명 이상

나. 전공강좌 개설여부 및 전공수업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다. 2017학년도 학기 현재 수강 중인 강좌는 개설학기 수강신청 불가

라. 2017학년도 학기 수강 신청한 강좌는 개설학기 수강신청 불가

마. 수강신청한 강좌 이후 수강취소 변경은 하루마다 일정수기(수강취소일 기준)

바. 폐강과 수강자는 원본/수정증정여부를 결정하여 반복 등록 시 해당 기간 내 흡수 등록 가능

사. 개설학기 수업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못한 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아. 개설학기 수강은 출석전 통상 8회, 5학년은 통상 10회, 6학년은 통상 12회로 하며, 편입생은 그 절반으로 함

자. 흡수생 개설학기 수강 시 유의사항

1) 후학중 2학년에 한하여 개설학기 수강 가능 (편입생은 흡수 중 1학년)

2) 출입업무에는 흡수 중 개설학기 수강을 불허함

● 문의처  
가.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학점교류생 등)  
나. 국제 후미나리스칼리지 행정실 02961-9339 서울시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청운관 2층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 교육관 5층

후미나리스칼리지 행정실

### 한국어·외국어 외국어강좌 전문 교육기관

LEAP Program

가. 접수 기간: 1차 - 2017. 6. 1.(목) ~ 6. 21.(수) / 2차 - 2017. 6. 1.(목) ~ 7. 19.(수)  
나. 강의 기간: 1차 - 2017. 6. 26.(월) ~ 7. 20.(목), 4주 / 2차 - 2017. 7. 24.(월) ~ 8. 18.(금), 4주

## 기획

# 셀란, 소송 끝 철수 “구성원 요구 반영하는 카페 만들어야”

## 베이커리 경희부터 매그놀리아 까지

정현진 기자 jhh88@k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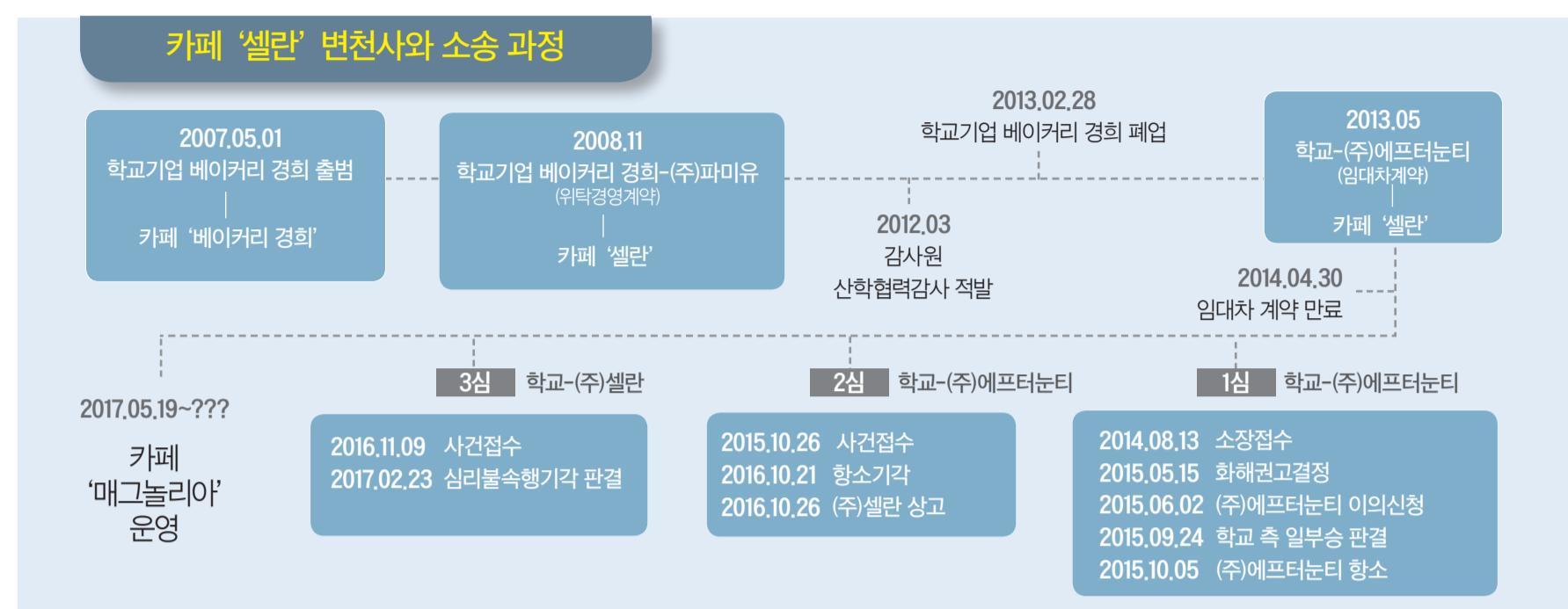
【서울】 호텔관광대학(호관대), 경영대학, 중앙도서관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카페 ‘셀란’이 지난 달 30일 최종 철수했다. 철수한 카페 공간에는 새로운 카페 ‘매그놀리아(magnolia)’가 들어왔으며, 방학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임시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신문은 ‘베이커리 경희’로 시작된 셀란의 변천사와 학교와 벌였던 그간의 소송과정을 짚어보고, 셀란 철수 이후 기존 카페 공간의 활용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봤다.

희망에 부푼 출범과 초라한 폐업,  
‘베이커리 경희’

2007년 5월 1일, 이전 5년 동안 논의만 되던 학교기업 ‘베이커리 경희’가 출범했다. 이는 당시 큰 수익으로 화제를 모았던 학교기업 ‘한방재료가공’을 잇는 두 번째 학교기업이었다. 구성원들은 베이커리 경희가 학생들에게는 휴식과 실습의 장을 제공하고 학교에는 또 다른 든든한 수입원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베이커리 경희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5년 안에 매출액 100억 원 달성’과 같은 원대한 포부를 안고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경영난이 곧 이어졌다. 적은 종류의 상품군, 미비한 실습 교육 등 학교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결국, 학교가 베이커리 경희의 적자를 교비로 충당하는 상황으로 전락했다.

2008년 11월, 학교 측은 베이커리 경희의 지속되는 경영난 극복을 위해 ‘주식회사 파미유’에 베이커리 경희 사업장의 위탁경영을 맡기게 된다. 학생들 사이에서 ‘경배’라는 친숙한 이름으로 불린 베이커리 경희는 이후 ‘셀란(Cellan)’이라는 낯선 브랜드를 달고 위탁경영 체제로 돌입했다. 카페 셀란은 상품 질 개선과 흑자 전환을 이뤄냈지만 학교 측이 더 이상 경영 전반에 관여할 수 없는 위탁경영 계약의 특성상 ‘무너난 학교기업’이 됐다. 베이커리 경희 당시 미미하게나마 이뤄지던 실습교육은 위탁경영 전환 이후엔 ‘상품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애예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베이커리 경희(셀란)를 담당하는 대학 내 부서와 담당자



가 자주 바뀌면서, 이 같은 일련의 문제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영향력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2010년, 학교 측과 (주)파미유의 위탁경영 계약이 이뤄졌다. 그러나 2012년 3월, 감사원은 산학협력 감사를 통해 학생 실습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적발이 주원인이 돼 베이커리 경희는 2013년 2월 28일, 결국 폐업했다. 출범 초기 포부대로였다면 ‘매출액 100억 달성’을 했어야 하는 시점이었다.

## 이어진 법정공방, 그리고 셀란 측의 폐소

위탁경영의 대상이 폐업했으나 자연히 (주)파미유와의 위탁경영 계약도 종료됐다. 학교 측은 카페 셀란을 대학이 직영하는 대신 (주)파미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에프터눈티’와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법을 택했다. 같은 간판, 같은 모습의 셀란이 었지만 더 이상 학교기업에 속하지 않기에 실상은 다른 셀란이 된 셈이었다.

2014년 4월 30일,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셀란과 학교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 것도 이즈음이다. 계약기간이 끝났으나 퇴거해달라는 학교의 요청을 (주)에프터눈티가 거부하고 나섰다. (주)에프터눈티는 ‘임대차계약보호법’을 들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

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즉, 임차인인 셀란이 임대인인 학교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학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해석이다. 학교 측은 계약 해지를 위해 ▲학교와의 합의 없는 식품 가격 인상 ▲오비스홀과 중앙도서관 매장의 영업신고증 부재 ▲셀란의 호관대 내 제과제빵 실습실 무단사용 ▲임대차계약종료 후 상가무단점유 등 4가지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주)에프터눈티는 이에 대해 반발했다. 음료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음료 용량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영업신고증 없이 운영됐던 중앙도서관과 오비스홀 매장에 대해서도 “영업신고증은 학교 측이 해결할 문제”라고 답했으며 호관대 지하 1층의 제과제빵 실습실을 이용한 점에 대해서는 “위탁경영 때부터 이용한 공간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2014년 8월 13일, 학교 측은 (주)에프터눈티에 대해 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른다. 이듬해인 2015년 5월,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이란 재판부가 분쟁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권하는 것이다. 피고 (주)에프터눈티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5년 9월, 원고인 학교 측 일부승으로 1심이 마무리됐다. 일부승은 재판부가 소장 내용의 일부만 받아들이고 일부는 기각하는 결정이다.

곧 피고 (주)에프터눈티는 항소했다. 2016년 10월의 2심 결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주)에프터눈티는 (주)셀란으로 상호를 바꿔 다시 상고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심리불속행기각이라 한다. 결국 3년에 걸친 법적공방은 지난 2월 23일 셀란의 폐소로 막을 내렸다. 호관대와 중앙도서관의 셀란 매장은 4월 28일, 오비스홀 매장은 4월 29일 영업을 마지막으로 4월 30일에 카페 공간을 모두 철수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던 셀란은 사라졌다.

## 카페 ‘매그놀리아’ 임시 운영

셀란이 위치했던 호관대 외부의 카페 공간과 오비스홀 매장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중앙도서관 매장에서는 지난 22일부터 ‘매그놀리아(magnolia)’라는 이름의 새로운 카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매그놀리아는 외부 업체가 아닌 우리학교 ‘생활협동조합(생협)’이 운영하는 공간으로, 8월 말까지 임시로 운영될 계획이다. 생협 김민하 팀장은 “카페 셀란이 이용자가 꾸준히 있는 학기 중에 철수한 상황을 고려해 생협에서 임시로 카페를 운영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매그놀리아 카페의 매장과 음료 가격은 셀란과 동일하지만 커피에 사용되는 원두의 종류나 식품 종류 등에서 세부적인 변동이 생겼다.

재정예산처 왕호용 계장은 “셀란 철수 후 공간이 비어있던 10여 일 동안 비슷한 기능을 원한다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있었

다”며 “최소 8월 말까지는 생협이 임시로 카페를 운영하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기능의 시설을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예산처 서병식 과장은 셀란 철수 직후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카페 공간이 학생들에게 갖던 순기능, 즉 실습과 휴식·공부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새롭게 조성될 공간에도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왕 계장 역시 이후 조성될 공간에 대해 “학생 실습이나 인턴 채용 등의 기능을 제공해달라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가 있어왔다”며 “해당 기능을 제공해줄 수 있는 외부업체를 선정할지 생협이 해당 기능을 갖춰 방학이 끝난 후에도 계속 운영을 하게 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편의시설을 통해 학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진=기호웅 기자)

## 제19회『다독 및 독서노트 습관화하기』공모

중앙도서관에서는 경희 구성원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도서관 소장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19회 다독 및 노트 습관화하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내용: 다독(도서대출) 및 독서노트 작성
- 대상: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재학생(학부, 대학원)
- 기간: 2017. 5. 1(월) ~ 11. 5.(일)

## 독서노트 작성

- 책을 읽고 간략하게 ‘독서노트’를 작성(100자 이상)
- 작성양식: 홈페이지로그인 → 읽은 책 도서검색 → 해당도서 독서노트 쓰기

## 발표

- 수상자 선정: 독서노트 작성 건수 및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
- 당첨자 발표: 2017. 11. 14.(화) 예정

## 시상

- 최우수상 ..... 1명(상품권 20만원)
- 우수상 ..... 6명(상품권 10만원)
- 입선 ..... 12명(상품권 5만원)

## 유의사항

- 응모작은 본인의 순수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이미 발표되거나 제출된 작품, 표절물, 모방작은 심사에서 제외됨
- 응모작 중 적합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 내놓은 경계될 수 있음
- 접수된 독서노트는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 수상 후에도 표절 또는 모방 사실이 밝혀질 시 수상 취소와 상금을 회수 조치함
- 제출된 모든 원고의 저작권은 도서관에 귀속됨

## 문의사항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T. 031-201-3213)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 2017학년도 후기 유엔평화학과 평화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 〈국제기구 진출의 첨경〉

- UN산하 및 관련기구인 UNITAR, WFUNA 인턴쉽 매년 18명 제공
- 졸업시 유엔평화학석사학위수여(Master of Peace Studies)
- 전 과목 영어로 강의
- 주중, 야간 주말 수업 제공



- 모집과정: 석사과정
- 모집전공: 유엔평화학과(유엔평화전공)
- 수시모집기간: 2017년 4월 10일 ~ 2017년 7월 15일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접수원료 원서기준 수시면접 실시)
- 합격발표: 면접완료 대상자기준 합격자수시 발표
- 온라인 원서접수: <http://www.unpeace.kn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문의처
  - 이메일: [gip@knu.ac.kr](mailto:gip@kn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 ‘빅문’ 과도한 강좌당 수강인원 “학습권 침해 수준”

##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④

양윤주 기자 cyanide@knu.ac.kr  
정종희 기자 jjhjh7@knu.ac.kr

#.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는 제1의 중핵 ‘인간의 가치탐색’과 제2의 중핵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이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된 제3의 중핵교과이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빅문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려사항들을 짚으며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의견 또한 학생에게 전달하고자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연재 기획을 마련했다. 지난 기사에서 ‘팀티칭’ 방식과 ‘평가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짚은데 이어 이번 기사에서는 빅문의 ‘강의 외부적 환경’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강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학생과 교수 등 강의 내부의 요소 뿐 아니라 강의 외부의 요소도 있다. 이를테면 강의실 환경, 강좌의 수 등이다. 이는 교수와 학생, 과목을 개설하고 제공하는 대학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 후발 주자로 중핵과목이 된 빅문은 강의 외부적 요소에서도 강좌 수, 한 강좌 당 학생 수 등에서 기존 중핵교과와 차이를 보인다.

## 다른 중핵과 비교해

### 현저히 낮은 ‘강좌 수’

기존 중핵교과와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자 학생들이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부분은 ‘강좌 수’다. 이는 지난해 우리신문이 기사(참고기사 : 대학주보 온라인, 2016. 9. 12)와 사설(참고기사 : 대학주보 제1610호 2면)로 2번에 걸쳐 짚은 바 있다. 지난해 2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마지막 날인 9월 7일을 기준으로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 및 비밀게시판에는 빅문을 구한다는 게시물이 총 135개가 등록됐다. 강의 매매 글까지 등장할 정도로 ‘강좌 수가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짙었다.

하지만 빅문은 기존 중핵교과들의 첫 시작보다 많은 학생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도입됐던 지난해 1학기 총 5개 빅문 강좌가 개설됐다. 인간의 가치탐색(인기팀)은 도입 당시 약 80개의 강좌가 열렸다. 강좌 수만 보면 빅문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인기팀이 80개의 강좌로 배출한 첫 학기 수강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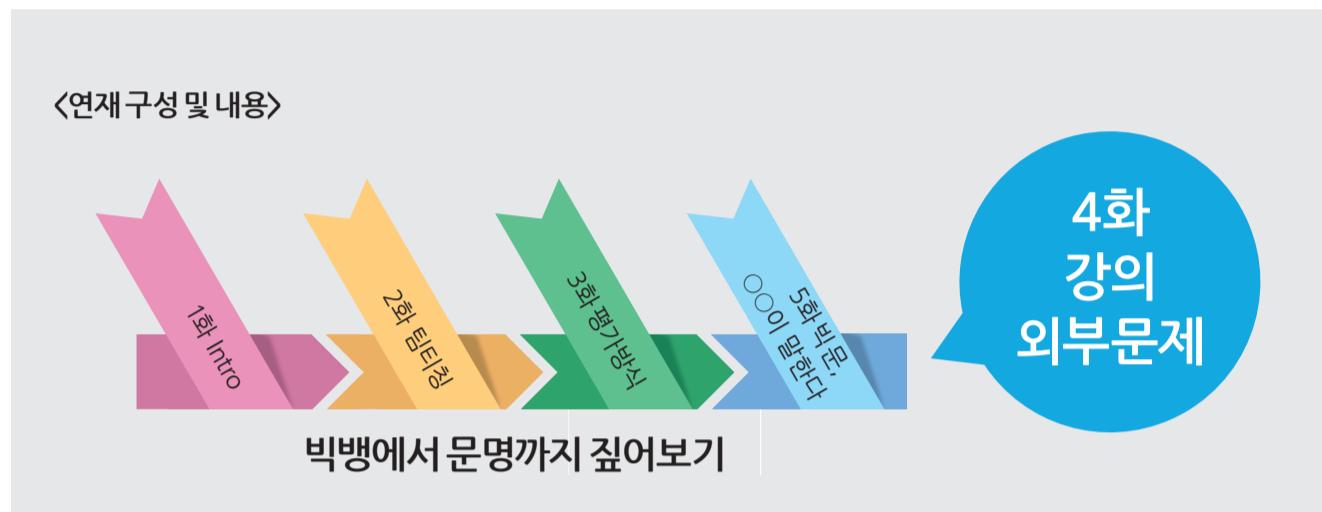
년도	1학기	2학기	수강자
2016	375	375	750
2017	750	750	1500
2018	1125	1125	2250
2019	1500	1500	3000
2020	1500	1500	3000
2021	1500	1500	3000
2022	1500	1500	3000

표1 : 각 년도 별 학기 당 빅문이 수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수강생 수  
2019년 이후로 그 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학년도	정원	1학기	여름	2학기	겨울	수강자	미수강자
2016	3,000	449		741	49	1,239	1,761
2017	3,000	1,180				1,180	
합계	6,000	1,629	-	741	49	2,419	

표2 : 현재까지 빅문의 실제 수강인원, 표1의 계획을 감안하면 도입 첫 학기부터 계획 보다 많은 학생들을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후마니타스칼리지



은 총 320명인 반면 빅문이 첫 학기 배출한 수강생은 449명으로 더 많았다. 더불어 인기팀,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와 달리 빅문은 8학기 중 어느 학기나 수강이 가능해 강좌 수가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매년 신입생 수를 3000명으로 가정하고 이를 8학기로 나누면 각 학기당 375명이 수강해야 한다. 여기서 매년 신입생 3000명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고려하면 가령 2017년도 1학기에는 16학번 375명에 17학번 신입생 375명을 더해 750명을 수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년 375명을 더해간다. 최종적으로는 2020년, 16학번 졸업인원과 20학번 입학인원을 고려하면 각 학기 당 수강인원 1500명을 유지해야 빅문 수강 대상인 모든 학생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빅문의 기획을 맡았던 권영균(물리학) 교수는 “빅문이 처음부터 모든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하며 “지금은 그 계획보다 더 많은 강좌가 개설된 상태이고 이번 학기에도 계획보다 430명 많은 1,18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빅문의 이러한 설계에는 ‘한 강의 당 학생 수’라는 맹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80개의 강좌의 수강생보다 더 많은 수의 수강생을 단 5개의 강좌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한 강좌가 적어도 90명 이상을 수용해야 한다. 특히 이번 학기 강좌 중 하나는 무려 216명이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다.

## 행·재정적 상황의 한계

### 기본적 학습권 침해와 대립

이는 후마의 오프라인 강의 중 전례 없는 수용인원으로 해당 강좌를 제외하면 후마의 130명 이상 강의는 온라인강의와 후마니타스특강, 체육교과 집중이수강의 뿐이다. 그러나 체육교과 집중이수강의를 제외한 강의의 강의평가점수 평균이 여타 교양 강의 평가 평균치보다 확연히 낮은 79.5점인 것을 고려하면 대형강의를 도입한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빅문 대형강의 도입배경에 대해 빅문을 총괄하는 송재규(화학) 교수는 “오랫동안 빅문을 준비해온 교수들로 강의를 진행

하고자 하다보니 한 강의 당 학생 수가 많아 질 수밖에 없었다”며 “소규모 강의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 학교의 재정적 상황과 제한된 자원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유정완 학장은 “빅문을 인기팀, 우사세와 같이 40명 강의로 만든다면 75개의 강좌가 개설돼야 했다”며 “75개의 강좌가 한 번에 개설되면 상대적으로 배분이수나 자유이수강의가 줄어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 216명이 수강하는 빅문 강좌를 듣고 있는 최지희(언론정보학 2016) 양은 “너무 많은 인원이 듣다보니 전체적인 집중도가 떨어지는 느낌이다”며 “토론수업시간에 서로 양방향 의견제시가 불가능한 구조라 빅문의 취지에 맞는 수업이 불가능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송민근(지리학 2016) 군 역시 “과학적 사고를 증진시킨다는 빅문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강의 형식”이라고 꼬집었다.

대형강의를 운영할만한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2016년 1학기에 빅문을 수강한 장희연(주거환경학

2016) 양은 “U-class 시스템으로 출결을 하는데 오류와 고장 난 기기가 많아 불편했다”고 말했다. U-class 시스템 장애는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다. 우리신문은 지난 2015년 U-class 카드기 회사인 인사이드RF 측 담당자를 통해 “카드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기계상의 결함일 가능성은 낫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문제가 발생하고 대학 본부의 재정적, 행정적 문제로 보수가 미뤄져 결국 이는 여전히 빅문을 비롯한 대형강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빅문의 척박한 강의환경은 교수들 사이에서도 어려움으로 지목되고 있다. 권영균 교수는 “U-class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 매우 불편했다”며 “특히 아예 작동이 되지 않는 날이 종종 있었는데, 행정실에 말해도 U-class 시스템 회사를 통해 해결해야 해서 수업에 지장이 됐다”고 밝혔다.

## 출결 시스템 보안책

### 여전한 불만 목소리

U-class 시스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구글 설문이다. 이번 학기부터는 구글 설문 링크를 배포해 매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앉은 자리의 행과 열을 입력하도록 했다. 수업 전후에 교수가 직접 강의실 사진을 찍어 사진과 구글 설문 결과를 일일이 대조해 가며 출결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수강생 1,118명의 출결을 관리하는 인력은 2명의 조교가 전부다. 출결은 총 성적반영비율의 20%에 해당하지만 학생들은 종강하기 전까지 출결 내역을 확인하기 힘든 실정이다. 김정현(언론정보학 2016) 군은 “성적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출결을 내가 원할 때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고, 후에 오류가 있어도 증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송재규 교수는 “워낙 수강생이 많다 보니 조교가 이를 한 명씩 확인하기 힘들다”며 “설문 후 이메일을 발송해 입력한 좌석을 보고 수정 할 수 있도록 일단 조치를 취해놓았다”고 말했다.

빅문의 강의 외부적 문제에 대해 후마 유정완 학장은 “후마 측에서는 빅문 시험 OMR카드 지원과 행정실 직원, 조교들의 시험 감독 지원 등 강의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인기팀, 우사세와 같은 기존 중핵과목에 비해 빅문은 상대적으로 재정지원을 적게 받고 시작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안내

### 1. 신청대상

재학생 및 복학생, 신·편입학생  
※ 2017-1학기 신입생은 2학기에는 재학생으로 신청

### 2. 1학기 학생 신청기간

2017.05.17.(수) 09:00 ~ 06.14.(수) 18:00

※ 일·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 제외)  
※ 재학생은 반드시 1학기 신청할 것  
(단, 재학 중 1학기에 한해 2학기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3.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017.05.17.(수) 09:00 ~ 06.20.(화) 18:00

###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및 서류제출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의무일 홈페이지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신청현황 → 제출서류에서  
제출서류 확인 가능

### 5.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 상담센터 1599-2000

## 2017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 장학사업 1차 신청안내

### 1. 장학명

국가교육근로장학

### 2. 장학목적

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나. 직업체험 기회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공

### 3. 주요내용

매월 근로시간에 따른 장학금 지급  
가. 교내근로: 시간당 8,000원/교외근로: 시간당 9,500원  
나.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20시간(학기종), 1학기 450시간 내외 진행

### 4. 신청기간

2017.05.17.(수) 09:00 ~ 06.14.(수) 18:00까지

※ 한국장학재단 학생 통합신청 일정과 동일

### 5.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6. 안내사항

가. 2017-2학기 1학기 신청기간에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해당학기 모든 근로 유형(학교 내 교육근로, 지역사회 교육근로, 현장교육근로 중 교육활동지원 분야) 참여 가능  
※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및 문화·체육활동 멘토링 제외  
나. 2017-2학기 1학기 신청기간 동안 2017-1학기 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 및 취업연계 유형 학생신청은 불가능하며, 동신청기간 종료 후 재개

### 7.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대표번호 1599-2000

## 2017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평가 결과는 수업의 질 개선과 신규과목 개설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1. 기간 : 2017.06.01(목) ~ 2017.06.27(화)

2. 대상 : 서울·국제 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3.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강좌

4. 성적 열람 및 공시 기간 : 2017.07.03(월) ~ 2017.07.05(수)

5. 강의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성적 조치 기간

■ 강의평가 실시 학생 : 2017.06.15(목) ~ 2017.06.29(목), (단, 06.25 ~ 06.27 제외)

■ 성적 일부로 원로된 강좌에 한함

■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 : 2017.07.03(월) ~ 2017.07.05(수)

### 6. 강의평가 실시방법

- 1)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수업/성적/상담 → 수업 → 강의평가 클릭
- 2)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할 강좌를 클릭
- 3) 회면 상단의 답변방법 설명에

## 기획

## 불통→반발→번복, 미숙 행정 전형



일이 불거지자 삼의원과 본부는 서로 책임을 떠 넘기기에 바빠 번복을 섰다. (사진 = 양윤주 기자)

## 삼의원 현행체제 유지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서울】 삼의원 기숙사가 외국인 전용 기숙사로 바뀐다는 삼의원의 통보가 전면 재검토 된다. 뿐만 아니라 이후 신축 기숙사 입사와 관련해서도 학생들과 협의체를 구성될 예정이다.

삼의원 기숙사는 지난 11일 삼의원 자치회에 ▲여름방학 잔류 불가능 ▲2017년 2학기부터 내국인 학생 입사 불가 ▲삼의원 자치회 해산을 일방 통보했다. 종학생회(총학)와 삼의원 자치회는 바로 반발하고 나서며 '삼의원을 유학생 전용 기숙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삼의원 사생의 대부분은 내국인 학생이다.

총학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삼의원과 학교 본부에서 각각 들은 답변을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삼의원 행정실은 본부에 삼의원 운영방침 변경 유예를 요청했으며 여름방학 잔류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학 본부는 "삼의원 관련 통보는 삼의원 기숙사 관장의 독단적인 판단이며 결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삼의원 행정실과 본부의 말이 다른 것이다. 총학은 성명서를 통해 "본부와 삼의원 행정실이 서로 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책임자의 서면 사과와 관련 내용의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캠퍸스 한준태 부총장은 총학의 성명서를 받은 당일, "삼의원 관련 행정적 결정을 원점 논의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내놨다. 한 부총장은 삼의원 기숙사를 유학생 전용 기숙사로 바꾸겠다는 계획에 대해 "검토 중인 사안이 학생, 교직원 그리고 유관부서 간 충분한 소통 없이 학생들에게 전

달되는 과정에서 오해와 혼란을 드려 유감이다"고 밝혔다. 또한 "신축 기숙사 개관 및 행정 절차에 대해서 종학생회와 삼의원, 세화원 대표를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총장의 입장발표가 있은 다음 날, 삼의원 행정실은 홈페이지에 여름방학 잔류 신청 공지와 함께 사과문을 게재했다. 삼의원 행정실 측은 '여름방학 중 잔류 불가'에 대해 "여름방학 중 노후화된 기숙사 시설 보수 공사로 인한 사생들의 주거 환경 피해를 우려했다"며 기존 퇴거 통보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삼의원 행정실은 "본부와 회의를 통해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되 방학기간 사생들의 잔류 신청을 받을 것이며, 2학기에도 현행 체제대로 내국인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의원 측의 결정이 번복됐지만 학생들은 학교 측에 통보식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삼의원에서 한 학기동안 생활한 유윤휘(언론정보학 2017) 양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2학기 때부터 시행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것은 학교에서 미리 논의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 아니냐"며 "학교가 2학기 입사 불가를 시행할 것이었다면 당연히 그 전에 살던 사생들과 논의를 해야 했으며, 신입생에게는 입사하기 전에 미리 알려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학교의 불통을 꼬집었다. 삼의원 자치회 최지원(식품영양학 2014) 회장은 "삼의원이 외국인 기숙사로 전환된다는 결정은 취소됐지만 당장 삼의원 식당 공사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도 남아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삼의원 측에서 결정을 유보함에 따라 같은 일년 뒤 됐지만 향후 논의가 남아있어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 2017학년도 후기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 • 모집학과 및 전공

구분	학과	전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공공법학과 중국법학과 지적재산법학과 조세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자산관리법전공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안전법전공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전공

## • 정학제도

구분	정학금	지급기준
공무원장학	수업료 1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다만, 정부위탁훈련생에 대해서는 등록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공무원장학으로 지원하되, 지급액은 수업료의 15%범위 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공공기관장학	수업료 1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평생교육장학	수업료 10%	사이버대학교법(법률신대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경희동문장학	수업료 10%	본교 및 호텔경영전문대학 등문
조교장학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용된 자

\* 목련장학, 모범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 강의 – 주중(아간) 및 주말 개설

※ 토요일 침강 강의 개설,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교차수강 가능

## • 경학전형 일정

• 원서접수: 2017. 5. 29(월) ~ 6. 8(목) 17:00  
• 전형일: 2017. 6. 10(토) 10:30

• 접수방법: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 접수(khsb2670@khu.ac.kr)

## • 전형료

50,000원(하나은행 278-910030-40505(예금주:법무대학원)으로 납부)

##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교(교) 입학증명서 1부

• 대학교(교) 성적증명서 1부

• 학업계획서 1부

※ 문의처 • 전화: 02-961-0905 • 홈페이지: interlaw.khu.ac.kr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 2017학년도 후기 법무대학원 특별과정(비학위과정) 모집

## • 모집과정

- 과정명: 미래법률지도자 양성과정
- 모집 인원: 00명

## • 모집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는 자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으로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자
- 법학에 관심이 있는 자

## • 미래 법률지도자 양성과정 특징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거나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법무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 과정이수

구분	과정	이수 기간	취득 학점
특별과정	미래 법률지도자 양성과정	1학기(16주)	10학점

※ 10학점 중 법무대학원 1과목(2학점)은 반드시 수강을 하여야 함

※ 법무대학원 강의 : 희망일 아간(9:00~22:00), 토요일(9:00~12:00/ 13:00~16:00)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www.khls.ac.kr) 시간표 확인

• 등록금 : ₩3,000,000(입학금 없음)

## • 전형 일정

• 원서접수: 2017. 5. 29(월) ~ 6. 8(목) 17:00

• 전형 일: 2017. 6. 10(토) 10:30

• 접수방법: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 접수(khsb2670@khu.ac.kr)

• 전형료: 50,000원(하나은행 278-910030-40505(예금주:법무대학원)으로 납부)

##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전화: 02-961-0905 • 홈페이지: interlaw.khu.ac.kr

## 영통역 버스 직접 타보니 '나홀로' 평균 탑승자 3.1명으로 이용 저조

## 셔틀버스 이용률 점검

신정인 기자 sj0201@khu.ac.kr

【국제】 지난해 9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영통역-사색의 광장' 간 셔틀버스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1회 평균 탑승자 수를 계산해 보면 약 3.1명에 불과했다.

영통역 셔틀버스는 각각 8시 20분, 9시 50분, 11시 20분, 12시 50분, 14시 20분, 15시 50분에 사색의 광장을 출발해 영통역을 경유, 사색의 광장으로 돌아온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제48대 총학생회(총학)이 주도한 셔틀버스 사업은 매일 학교와 영통역을 오가는 학생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영통역 셔틀버스는 각각 8시 20분, 9시 50분, 11시 20분, 12시 50분, 14시 20분, 15시 50분에 사색의 광장을 출발해 영통역을 경유, 사색의 광장으로 돌아온다. 국제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주로 이용한다. 추가 요금이 없거나 환승요금 만으로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운행 시간대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이는 운행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로, 오후 영통역 행 셔틀버스의 마지막 출발 시간은 3시 50분이다. 4시 이후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아예 이용이 불가하다. 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간대에는 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분당선을 이용해 통학하는 조혜진(응용화학 2016) 양은 "10시 30분에 첫 수업이 있다면 영통역에는 수업 시작 10분에서 20분 전쯤 도착하기 마련인데 셔틀버스는 그보다 앞선 10시 경에 운행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셔틀버스를 자주 이용하지 않게 되는 이유를 전했다.

홍보 부족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제캠 총학 이정인(체육학 2011) 대외협력처장은 "자체조사 결과 셔틀버스를 모르는 학우들도 꽤 있었다"라며 "충분한 홍보가 부족했던 점도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총학은 지난 7일부터 국제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흥보 부족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제캠 총학 이정인(체육학 2011) 대외협력처장은 "자체조사 결과 셔틀버스를 모르는 학우들도 꽤 있었다"라며 "충분한 홍보가 부족했던 점도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총학 이처장은 "셔틀버스 이용은 학우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추후 논의를 계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 '전체 노선 재검토 예정' 밝혔다

학교 측 담당자인 사무처 총무팀 박수인 행정계장도 "한정된 대수를 가지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며 "총무팀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관계자들과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통해 학교 측과 총학 측 모두 영통역 셔틀버스의 이용률 저조에 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전체 노선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비교적 수요가 많은 '캠퍼스 간 셔틀버스' 증차 등 효율적인 노선 배치를 통해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예술·디자인대학 앞 주차장에 셔틀버스가 주차돼 있다. 향후 진행 될 버스 간담회에서 운영계획이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 = 기호웅 기자)

## 5월 마지막 주(5.29~6.2)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취업·진로 준비!! 취업진로지원처와 함께 하세요.'

## 1. 기업체 채용행사 및 취업특강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청년취업아카데미 미케팅리서치과정 설명회	5.29(월) 15:0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2017 상반기 공채대비 모의면접	5.31(수) 13:00~18:00	청운관 1층 상담실	
증진기금 바로알기 특강	6.2(금) 13:00~14:45		



## 기획

## 공유형 상점 운영방안

## 2017년 상반기

## 2017년 하반기+@



Pop-up Store 5개  
Time Store 1개  
Everyone Store 1개

참여점포에 대한 지원 및  
법적 문제 해결



아이템별  
상점오픈

멘토링, 전문가컨설팅을  
통한 정착화 지원



전문가그룹을 통한  
사업 아이템별  
가능성 점검

청년대상의 공개모집을 통한  
아이템 발굴



매출현황,  
지속가능성 등  
(1년단위 평가 /  
재계약 또는 신규창업)  
미율활성화 기금 적립

## ▶면에서 이어짐

회기동에는 공공소유 점포가 없어 일반상가를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사무국이 임대해 상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타임스토어와 에브리원 스토어 모두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료를 일부 지원한다. 올해 6월, 에브리원 스토어가 먼저 문을 열고 다른 형태의 상점은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사이다'가 활성화되고 공유형 상점이 자리를 잡으면 '사이다'와 지역주민들, 상인들이 모여 '골목반상회'라는 보다 큰 규모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계획이다. 골목반상회는 골목개혁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단체로, 하드웨어 프로그램의 모든 기획을 전담하며 골목커뮤니티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종적으로는 골목반상회를 회기동 골목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마을 주민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는 것이 목표다. 회기동 골목협동조합이 공유형 상점을 인수·운영하도록 할 계획 또한 있다.

한편, 골목반상회의 구성원들은 '경희밖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경희 밖 학교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리더십교육이다. 골목반상회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청강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도 신청받을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현안을 파악하는 방법·문제해결·실천방안·협동조합교육과 사회적 경제에 관한 교

육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방학을 포함한 약 1년짜리 코스로 모든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김 연구원은 "대학의 사회공헌활동은 더 이상 독거노인 봉사나 불우이웃돕기 같은 활동에 묶여있지 말아야 한다"며 "대학이 지난 능력과 역량을 활용해 차별화된 전문성을 가진 활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교육코스를 둬왔다"고 말했다.

## 하드웨어 프로그램

하드웨어 프로그램은 던킨도너츠 경희대점 건물부터 청량초등학교 앞까지의 약 200m 구간 골목을 대상으로 골목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해당 구간은 유동인구에 비해 골목이 좁고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다. 세부적으로는 보행자 중심 도로로의 시공개선을 위한 골목길 개선사업과 도로시설물 디자인을 이용한 골목특화사업이 진행된다. 전자는 골목길의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학과 교수와 학생으로부터 골목 디자인계획에 대한 자문과 감수를 구한다. 후자인 도로시설물 디자인은 소규모 거리조형물을 의미하며 가로등, 벤치, 우체통 등이 이에 속한다. 골목에 하나의 콘셉트를 적용해 그에 어울리는 조형물을 배치하는 것으로, 광주 광역시 '송정역 시장'을 둘 모델로 삼고 있다. 골목길 개선사업은 주거환경학과, 골목특화사업은 미술대학 전공수업과 연계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

## 프로젝트 앞둔 회기동은 '불황 속'

## 회기동 상권 분석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소상공인시장공단에서 제공하는 전국 상권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현재 회기동에 위치한 상점은 총 630여 개인데, 지난 2년 사이 160개가 폐업했다. 사라진 가게 중에는 '녹원'과 '은성칼국수'와 같이 지난 30년 가까이 우리학교 앞을 지킨 노포들도 있어 이슈가 되기도 했다. 〈회기동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앞두고 불경기 속의 회기동 상권사정을 짚어봤다.

## 지난 2년간 폐업 160건

## "임대료에 거품겼다" 지적도

32년째 영업을 끝으로 지난해 12월 폐업한 '녹원'의 사장을 비롯한 회기동 상인들은 '임대료' 문제를 폐업 원인의 한 축으로 꼽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희대상권 조사 보고서를 처음 작성한 2008년도만 해도, 공단 측은 경희대 인근 상가의 임대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으로 꼽았다. 하지만 재조사가 이뤄진 2015년도의 보고서에는 저렴하다는 표현이 일체 자취를 감췄다. 2015년 자료 발표 당시 기준으로 활성화지역 1층은 보증금 7,000만 원에 월 임대료 300만 원에 달했고, 권리금도 최대 2억 원까지 형성됐다. 청량초등학교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경희대 정문부터 청량초까지의 거리는 특히, 임대료 뿐 아니라 권리금에도 거품이 껴서 장

사를 접고 권리금을 보전받기도 어렵다"고 말한다.

'경희대상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회기동 상권은 인구유입시설이 우리학교와 경희의료원으로 특정되는 전형적인 대학 가상권이다. 동시에 지하철이나 버스노선이 풍부하지 않아 다른 상권과 이어지지 않는 핵심형상권이라고 진단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찾지 않는 '방학'은 회기동 상권에게는 빙하기인 셈이다. 실제로 〈경희대상권 조사 보고서〉에서 조사한 방학 중 인구 유동량은 오후 기준 평균 한 시간 동안 800명 수준으로, 2015 인구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평균 유동인구 2,300명의 1/3 수준이다. 실제로 회기동 상인들은 임대료가 비싼 문제만큼이나 수입이 급감하는 '방학'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경희대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B씨는 "방학만 되면 수입의 20%가 줄어든다"고 이를 확인시켜줬다.

## 방학이면 수입 급감

## 불황형 매장 급증

이런 문제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기를 덜 타는 약국, 부동산 등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인노래방과 인형뽑기 가게들도 눈에 띈다. 이 가게들의 특징은 '인간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황형 매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불황형 매장의 대표적인 오락업종이 포함된 PC/오락업종의 경희대상권 밀집도는 2014년 말 1.62에서 점차 증가해 2017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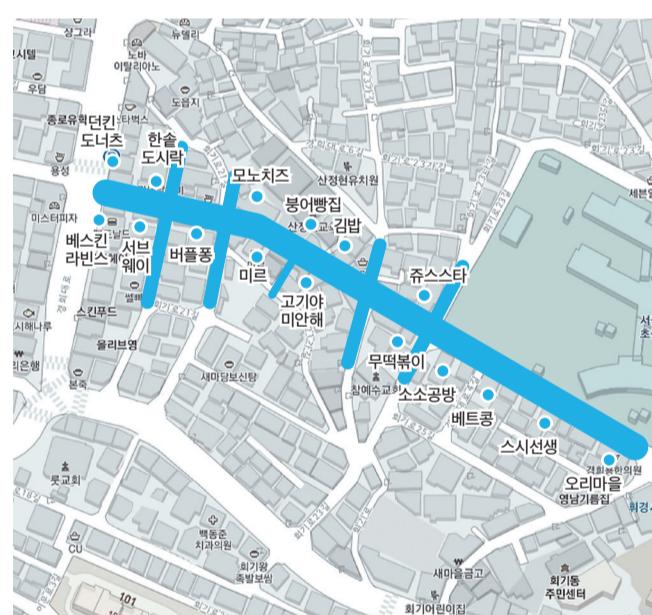
에는 2.38이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 이상이면 업종별 밀집도 최고등급인 '매우 높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래방업종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13에서 2.56으로 크게 늘었다.

물론 회기동 상권이 앓는 폐업문제는 서울시내 많은 상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다. 원주민이 내쫓기고, 프랜차이즈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을 뜻하는 '젠틀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단어도 이제 익숙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캠퍼스타운사업에 선정됐다는 이야기에 상인들은 대체로 '좋은 일'이지만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회기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캠퍼스타운 설계를 준비하는 이들로 보인 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에 들러 카페 창업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카페창업도 협동조합도, 최근 위낙 실패사례가 빈번하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회기동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의 골목길 개선사업에 대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아니냐"라며 "멀쩡한 도로를 세금 써서 바꾼다는 이야기에 거부감이 든다"고 말했다.

여러 우려 속에서 〈회기동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는 다음달 6월 '골목상권 홍보'를 시작으로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첫 번째 목표는 다음해 6월에는 골목특화 디자인을 시공하는 것이다. 대학과 지역사회 회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불황에 고생하는 회기동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프로젝트 대상지 : 경희대로 4길



골목특화사업 모델이 된 광주 송정역시장

(사진출처 = 중앙일보)

##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